화 첩



밝게 웃어라 활짝 피여라

평양출판사

밝게 웃어라 활짝 피여라



주체110(2021). 6.

아이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높아야 온 나라가 밝아지고 사회에 따뜻한 정이 넘쳐나게 됩니다.

김정은






LET'S LEARN FOR KOREA!



우리 아버지





만경대혁명학원 원아들속에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부모들을 대신해주어야 한다시며

주체101(2012)년 설명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만경대혁명학원 식당에 들어서시였을 때는 원아들이 한창 저녁식사를 하고있을 때였다.

원아들에게 국을 퍼주다가 뜻밖에 그이를 뵙고 기쁨과 감격에 넘친 취사원들이 올리는 인사를 받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국이 식기 전에 아이들에게 어서 국을 퍼주라고 하시며 래일 명기소를 보내주겠으니 국을 맛있게 끓여 잘해먹이라고 당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식사를 하고있는 1학년 학생들에게로 다가가시여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이 제일 맛있는가고 친어버이 정을 담아 다정히 물어주시였다.

행복한 한가정의 명절식사기분이 넘쳐나는 속에 이윽고 학원책임일군이 경애하는 원수님께 학원에 생일방도 있다고 말씀올리였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매우 반가운 표정으로 어서 가보자고 하시였다.

2층에 오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정갈하고 아늑하게 꾸려진 생일방을 만족하게 둘러보시며 원아들의 생일상을 어떻게 차려주는가고 물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생일이 되면 누구나 부모를 먼저 생각합니다. 어른들도 즐거울 때면 부모생각이 나는데 나이어린 학원학생들이 생일이 되면 부모생각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학생들에게 생일상을 차려줄 때에는 학원일군들이 그들을 축하해주면서 부모들을 대신해주어야 합니다.》

원아들의 마음속생각까지 헤아려 친부모도 못다준 사랑을 더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일군들은 가슴뜨거움을 금할수 없었다.



설명절에 즈음하여 만경대혁명학원을 방문하시고 원아들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조선소년단창립 68돐에 즈음하여 만경대혁명학원을 방문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으시고 원아들과 함께 식수를 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만경대혁명학원에 깃든 절세위인들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가슴마다에 새겨가는 원아들



조선소년단창립 72돐경축 학생소년들의 종합공연에 출연한 만경대혁명학원 원아들



평양애육원을 찾으시고 국제아동절을 맞는 원아들을 축복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친아버지의 심정으로 원아들의 생활을 세심히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이른새벽에 울린 전화종소리

어느날 이른새벽이였다.

한 일군이 잠에 들었다가 전화종소리에 깨여났다.

뜻밖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걸어오시는 전화였다.

《아니, 이른새벽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일군은 크나큰 충격에 휩싸였다.

그이께서는 새벽에 잠을 깨워서 미안하다고 하시며 량해부터 구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신께서 지금 애육원과 육아원사업을 개선할데 대한 문제를 생각하던중이라고 하시면서 그에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일군은 또다시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그때로 말하면 당과 국가의 긴박하고 중대한 일들이 그이의 사색을 기다리고있었다. 안팎의 정세도 매우 긴장하였다.

그런데 또 애육원, 육아원 원아들에 대한 걱정으로 이 한밤도 지새시며 마음쓰시는것이 아닌가.

그이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였다가 전국의 육아원과 애육원, 초등학원, 중등학원 그리고 양로원들의 실태를 알아볼데 대해 이르신 다음 전화를 마치시였다.

받아안은 충격이 너무 커서 일군은 한참동안이나 송수화기를 손에 든채 서있었다.

창밖을 내다보니 새벽하늘에 별들이 하나둘 사위여가고있었다.

이른새벽에 울린 전화종소리.

그 소리는 원아들이 만시름을 모르고 세상에 부럼없이 행복하게 자라게 하시려 낮이나 밤이나 크나큰 로고를 바쳐가시는 절세위인의 숭고한 후대사랑의 종가였다.



평양육아원, 애육원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아이들의 행복의 요람, 세상에 다시없는 아이들의 궁전으로 솟아오른 평양육아원, 애육원



완공된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평양육아원, 애육원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완공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손색없이 꾸려진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돌아보시며 만족을 표시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궁궐같은 요람에서 행복넘친 생활을 누리고있는 평양육아원, 애육원의 원아들







나는 오늘 정을 그리워하는 원아들과 양력설을 함께 쇠려고 신년사를 한 다음 제일먼저 평양육아원과 애육원에 왔습니다. 새해신년사를 하면서 온 나라의 귀여운 어린이들에게 더 밝은 미래가 있기를 축복해주고보니 평양육아원과 애육원 원아들이 더욱 보고싶었습니다.

김정은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찾으시고 새해를 맞이하는 원아들을 축복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평양육아원, 애육원의 원아들이 설을 어떻게 쇠고있는가를 알아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저저마다 달려와 안기는 원아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송이송이 곱게곱게 피라고
따사로운 한품에 안아주셔요
김정은원수님 고맙습니다
김정은원수님 고맙습니다

내 나라를 빛내갈 보배되라고
밝고밝은 앞날을 펼쳐주셔요
김정은원수님 고맙습니다
김정은원수님 고맙습니다

— 노래 《**김정은**원수님 고맙습니다》중에서 —



국제아동절 65돐기념 친선련환모임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노래하는 평양애육원의 원아들



멋쟁이아동궁전으로 훌륭히 일떠선 원산육아원, 애육원



준공식을 앞둔 원산육아원, 애육원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원산육아원과 원산애육원 준공식을 할 때 준공테프는 원아들이 끊게 하여야 합니다. 원아들이 자기가 살게 될 집에 이사하면서 준공테프를 자기 손으로 끊게 하면 어른이 되여서도 그것을 두고두고 잊지 못할것입니다.

김정은








희한한 궁전에서 마음껏 뛰놀며 행복하게 자라는 원산육아원, 애육원의 원아들



대성산종합병원을 찾으시고 보양을 받고있는 육아원과 애육원 원아들을 만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어리광을 부리는 원아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전례없는 병문안

주체103(2014)년 5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대성산종합병원에서 보양을 받고있는 육아원과 애육원 원아들을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원아들이 들어있는 입원실에 들어서시였을 때였다.

노래공부중에 있던 원아들이 《아버지원수님!-》 하고 부르며 앞을 다투면서 달려와 그이 품에 안겼다.

그이의 존안에 해빛같은 미소가 어렸다.

그동안 원아들이 무척 보고싶으시였던듯 그이께서는 그들을 한품에 안아 살뜰히 애무해주시며 보동보동 살이 오른 얼굴들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시였다.

그때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에 안긴 한 어린이가 옷섶을 만지작거리며 손가락장난을 하기 시작하였다.

아직은 철부지인지라 자기가 지금 얼마나 큰 행복을 누리는지도 모르고 장난에 여념없는 어린이의 모습을 지켜보던 한 일군이 이애가 경애하는 원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는것 같다고 말씀올렸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그애를 더욱 꽉 그러안으시며 그래 내가 아버지다, 그렇구말구,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안되면 누가 되겠는가고 갈리신 음성으로 뇌이시였다.

내가 아버지다!

친아버지가 아니고서는 부를수 없는 정깊은 이 말씀에 일군들과 군의, 간호원들의 눈굽이 뜨겁게 젖어들었다.

모두가 가슴이 뭉클하여 그 감동깊은 화폭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



원아들에게 친어버이의 정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각지에 훌륭히 일떠선 육아원, 애육원들에서 부럼없이 자라고있는 원아들











원아들의 따뜻한 보금자리, 훌륭한 배움터로 손색없이 꾸려진 평양초등학원



평양초등학원 원아들과 함께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새로 건설된 평양초등학원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평양초등학원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교육환경과 생활조건이 그쯘히 갖추어진 평양초등학원에서 마음껏 배우며 자라는 원아들







원아들에게 훌륭한 학원을 안겨주게 되였으니 하늘의 별을 따온것 같이 기쁩니다. 대단히 만족합니다. 원아들을 세상에 부럼없이 키우려는 나의 소원이 또 하나 풀리게 되였습니다.

김정은





새로 건설된 평양중등학원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평양중등학원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평양중등학원의 건설 및 운영준비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나라의 역군으로 자라날 크나큰 포부를 안고 학습에 열중하고있는 평양중등학원의 원아들



멋쟁이학원에서 재능의 나래를 활짝 꽃피워가고있는 평양중등학원의 원아들

우리가 바라는것이 별이라며는
저 하늘 별들도 따다주셔요
행복하여라 부럼없어라
우릴 제일 사랑하시는
김정은원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온 나라 아들딸들 품에 안고서
날마다 더 큰 행복 안겨주셔요
행복하여라 부럼없어라
우릴 제일 사랑하시는
김정은원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 노래 《**김정은**원수님은 우리 아버지》중에서 —



하늘의 별이라도 따와야 한다시며



배움의 천리길학생소년궁전의 나어린 소조원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밝은 앞날을 축복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기다려주신 30분

주체102(2013)년 5월의 어느 일요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휴식도 마다하시고 평양시묘향산등산소년단야영소를 찾아주시였다.

소문도 없이 조용히 이곳 야영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워주시며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낌없이 다 돌려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후대사랑이 어려있는 령도의 자욱을 따라 귀중한 시간을 바쳐가시며 야영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시였다.

그러시다가 그이께서는 문득 아이들이 어디 있는가고 물으시였다.

지금 한창 등산중이라는 야영소일군의 대답을 들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언제 내려오는가고 다시 물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자신께서 여기까지 왔다가 야영생들을 만나보고 그들과 기념사진도 찍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몹시 섭섭해할것이라고, 아무리 시간이 바빠도 야영생들을 만나보고 가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등산했던 아이들이 삼삼오오 떼를 지어 산에서 내려오기 시작했다. 자기들에게 어떤 행복의 시각이 다가왔는지 사연도 모르고 즐거운 등산을 마치고 돌아온 아이들은 깜짝 놀랐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기들을 위하여 30분을 기다리고계시였던것이다.

야영생들은 그이를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게 된것이 꿈을 꾸는것만 같아 행복에 겨워 울고웃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무한한 행복에 겨워 눈물로 두볼을 적시는 아이들의 등을 다정히 두드려주시면서 울지 말고 찍어야 사진이 잘된다고, 어서 눈물을 그치고 사진을 찍자고 달래이시였다.

그이의 눈가에도 뜨거운것이 젖어올랐다.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 귀중한 시간을 아낌없이 바쳐가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기다려주신 30분, 실로 천금같은 사랑의 시간이였다.



평양시묘향산등산소년단야영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개건하면서 애로와 난관도 있었지만 오늘과 같이 현대적으로 꾸려진 야영소에서 우리 아이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넘쳐날 그날을 그려보니 정말 고생한 보람을 한껏 느끼게 됩니다. 이런 멋에 혁명을 하는것 같습니다.

김정은





준공을 앞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세상에 둘도 없는 아이들의 궁전으로 희한하게 일떠선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준공식에 참석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소원을 푼 철부지소년

주체103(2014)년 5월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준공식에 몸소 참석하시여 온 하루를 아이들을 위해 바치신 바로 그날에 있은 일이였다.

이날에 진행된 전국소년축구경기대회 결승경기는 그야말로 볼만 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관람석에 모시고 멋쟁이건축물로 훌륭하게 일떠선 야외운동장에서 첫 경기를 하게 된 평안남도팀과 함경남도팀의 소년축구선수들의 얼굴마다에는 끝없는 환희와 랑만이 한껏 어려있었다.

나이는 어려도 능숙한 공몰기와 집단주의정신, 훌륭한 경기도덕품성을 발휘하는 선수들에게 관람자들은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내였다.

치렬한 경기끝에 결국 함경남도팀이 평안남도팀을 5:4로 이겼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끝없는 영광과 행복에 겨워 목청껏 환호를 올리는 선수들과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고 량팀 선수들과 감독들, 심판원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였다. 그러시고는 그들을 따뜻이 고무해주시고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였다.

이때였다.

갑자기 경기보장성원으로 있던 한 소년이 경애하는 원수님께로 달려와 자기들도 기념사진을 찍어달라고 철없이 응석을 부리였다.

동행한 일군들모두가 긴장해졌다.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환하게 웃으시며 소년을 따뜻이 품어안아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눈물을 흘리며 간절한 소원을 아뢰인 그 소년과 함께 격정의 환호를 올리는 경기보장성원들까지 몸가까이 부르시여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는 한량없는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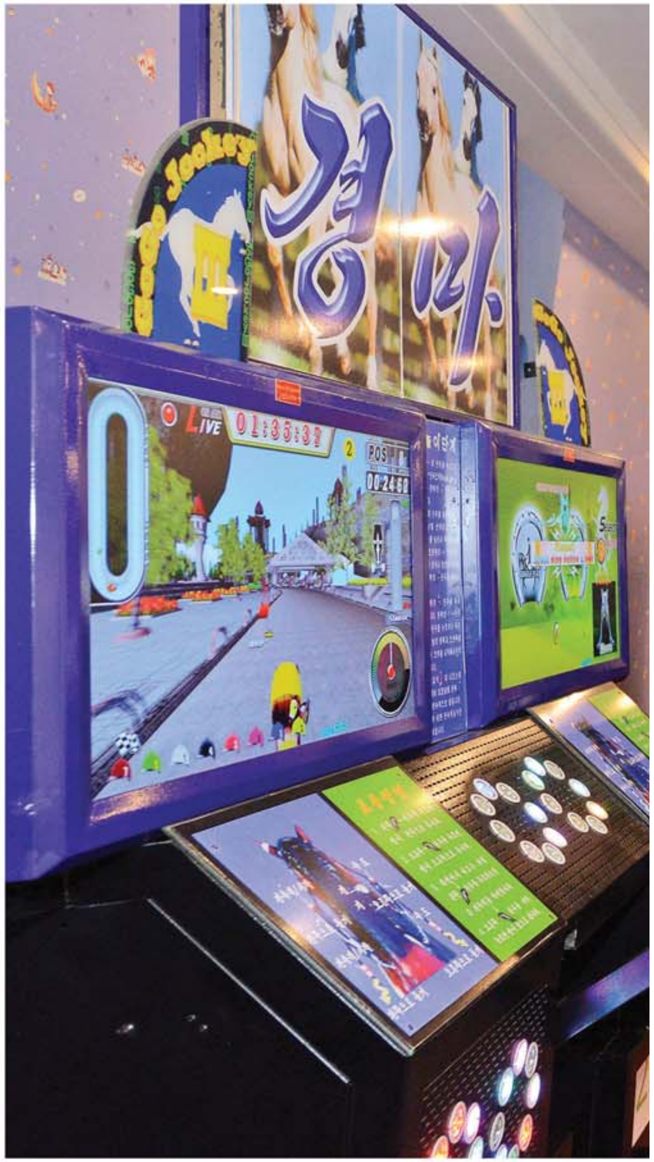
철부지소년의 응석까지도 허물없이 받아주시는 경애하는 그이의 모습은 정말로 다정한 친아버지의 모습이였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진행된 전국소년축구경기대회 결승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을 만나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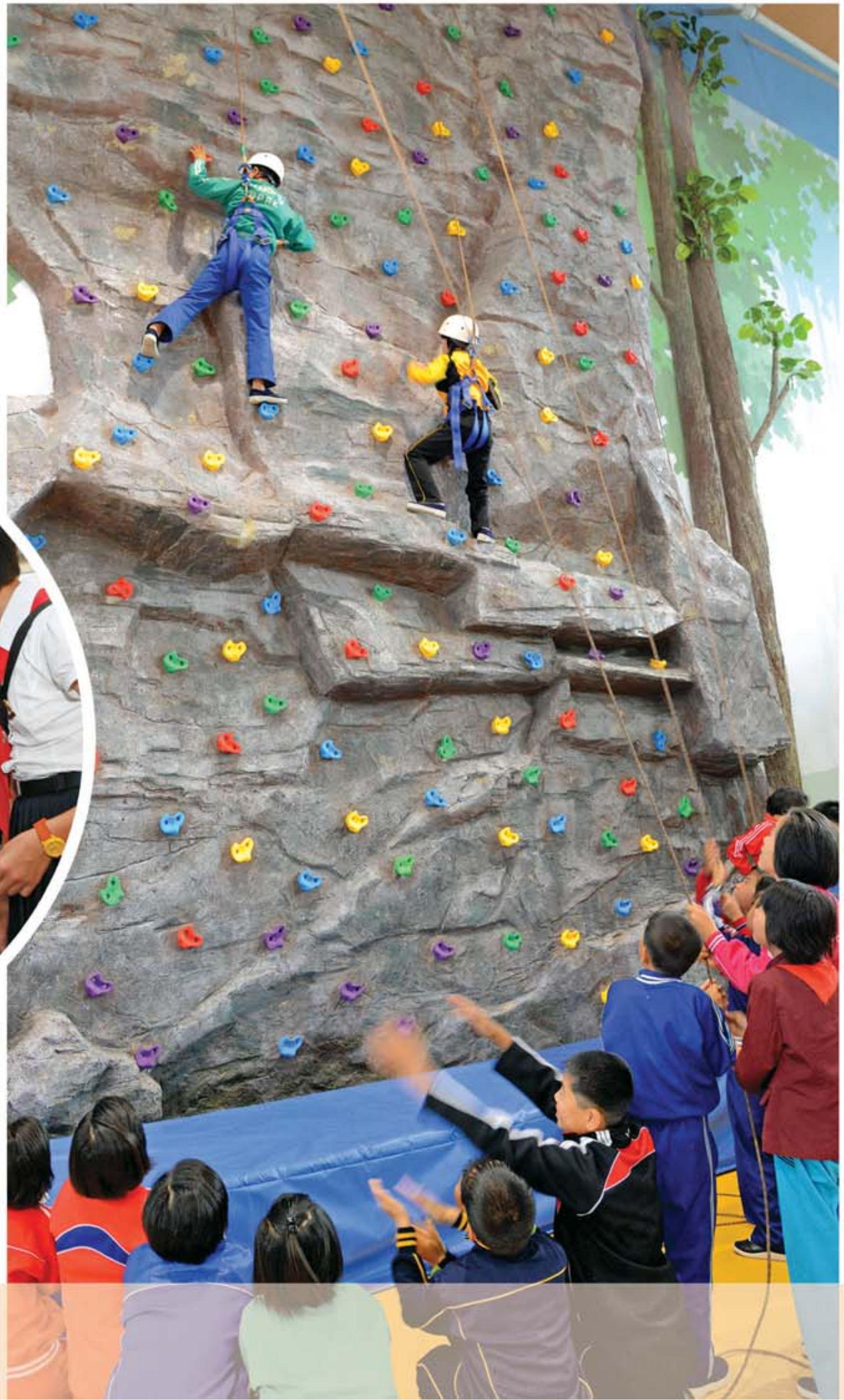


그 면모를 완전히 일신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 아이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넘쳐난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즐거운 야영의 나날을 보내고있는 학생소년들





풍치수려한 룡악산기슭에 학생소년들을 위한 종합적인 과외교양기지로 훌륭히 일떠선 만경대소년단야영소



새로 개건된 만경대소년단야영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만경대소년단야영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만경대소년단야영소의 개건정형과 운영준비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만경대소년단야영소에 입소하는 야영생들



만경대소년단야영소에서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있는 야영생들



새로 개건된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종합적인 과외교양기지로 훌륭히 개건된 만경대학생소년궁전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개건 및 운영준비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현대적미감과 동심에 맞게 꾸려진 만경대학생소년궁전 극장을 돌아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그 면모를 일신한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 희망과 재능을 활짝 펼쳐가고있는 학생소년들





새로 건설된 민들레학습장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오늘은 기분이 대단히 좋습니다. 질좋은 학습장들을 받아안고 좋아할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생각하니 춤이라도 추고싶은 심정입니다.

김정은





민들레학습장을 받아안고 기뻐하는 소학교 입학생들



조국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미래의 주인공들로 준비해나가는 학생소년들



새로 건설된 평양가방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예로부터 자식을 하나 키우는데 오만자루의 품이 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수백만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당의 자식복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데 억만자루의 품이 든다고 하여도 그것을 고생으로가 아니라 행복으로 생각합니다.

김정은





아이들의 기호와 미감에 맞게 만들어진 소나무책가방을 받아안고 좋아하는 학생소년들



소나무책가방을 메고 어깨동무 즐겁게 학교로 오가는 학생소년들

기준은 아이들의 입

주체104(2015)년 11월,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품견본실에 들리시였을 때였다.

제품견본실에는 새로 꾸린 현대적인 생산공정에서 만들어진 갖가지 어린이식료품견본들이 놓여있었다.

로동자들의 정성이 깃든 식료품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동행한 일군에게 이제는 제품의 다양화를 실현해야겠다고 하시며 공장에서 생산공정을 현대화하고 제품분석체계까지 세워놓았으니 제품의 영양학적, 위생학적요구를 보장할수 있는 조건에서 제품을 맛있게 만들기 위한 새로운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맛을 가지고 다른 나라와 경쟁을 해야 한다고 전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시였다.

식료품, 음식물을 만드는 공장에서는 전적으로 맛문제, 질문제를 종자로 틀어쥐고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그런데 경쟁이라는 두 글자앞에서 이들에게 새로운 문제점이 생기였다.

기준문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 기준에 대한 명철한 대답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아이들의 입은 속이지 못한다고, 아이들의 입만큼 예민한것은 없다고, 갓난아이들도 말은 못하지만 맛은 안다고, 같은 우유가루라도 아이들이 이 공장의것보다 다른 나라의것을 잘 먹으면 이 공장의것은 맛이 없다는것이라고,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에서 만든 제품의 질에 대한 평가기준은 아이들이 즐겨 찾는가 찾지 않는가 하는것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어린이식료품의 질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름아닌 아이들의 입!

너무도 당연하고 명명백백한 기준이였다.



우리 식 현대화의 본보기공장으로 전변된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새참시간에 콩우유를 마시는 어린이들



아이들을 찾아 매일같이 수도의 거리를 달리는 콩우유차들

아이들을 위해서는 억만금도

주체102(2013)년 7월, 며칠째 내리던 비가 세찬 바람까지 동반하면서 억수로 쏟아지던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옥류아동병원건설장을 찾으시였다.

쏟아지는 폭우속에서 건설장의 요소요소를 다 돌아보시며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던 그이께서는 화제를 바꾸시였다.

아동병원에 들여놓게 될 설비들에 대한 문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얼마전에 해당 부문에서 보고한 문건을 보니 일부 의료설비들이 부족하여 아동병원에서 치료받게 될 어린이들의 병진단을 어떤것은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에 가서 하고 치료는 아동병원에서 하는것으로 예견하였는데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사실 의료설비들을 갖추어놓지 못하고 건물이나 지어놓고 준공식을 하여서는 의의가 없다고 지적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윽하여 설비들의 가격에 대해 물으시였다.

일군들로부터 그에 대해 료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단호한 어조로 아동병원에 그 설비들을 놓아주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설비 한대 값이 너무 비싸 예견하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값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아동병원에는 갖추어주도록 하여야 한다고, 아동병원은 자신께서 마음먹고 건설하는 우리 어린이들의 종합적인 치료기지인것만큼 자금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설비를 무조건 갖추어주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

그이께 있어서 나라와 민족의 희망이고 미래인 어린이들을 잘 키우는것만큼 중대사는 없으시기에 아이들을 위한 병원건설에 그처럼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쳐가고계시는것이였다.



옥류아동병원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옥류아동병원에는 치료 및 처치실, 수술실, 입원실들은 물론 입원한 어린이들이 공부할 교실들도 특색있게 꾸려져있다.







사랑의 기념사진

주체101(2012)년 11월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준공을 앞둔 류경원과 인민야외빙상장, 로라스케트장을 찾으시였다.

드넓은 공지에 특색있게 꾸려진 로라스케트장에 들어서신 그이께서는 기본주로의 한바퀴길이는 얼마인가, 운영은 어떻게 하려는가를 일일이 물어주시고 명당자리에 자리잡은 로라스케트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것이라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로라스케트타기는 사시절 진행할수 있는 운동이라고 하시면서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로라스케트장을 꾸려놓으니 얼마나 좋은가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아마 소학교 학생들은 로라스케트를 타는 정신에 학교에 가는것을 다 잊을것이라고 하시며 로라스케트를 타고있는 어린이들을 정겨운 시선으로 바라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린이들이 로라스케트를 잘 탄다고 하시며 평양시에서 로라스케트를 타는 어린이들이 많이 보이는것만 보아도 사회적으로 로라스케트를 타는 바람이 불고있다는것이 알린다고, 어린이들은 누구나 다 로라스케트를 타기 좋아한다고 매우 만족하신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기교장에서 기교동작을 하고있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아주시면서 어린이들이 기교동작을 재치있게 한다고, 청소년들은 기교동작을 할수 있지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기교동작을 하다가는 에누리없이 곧장 병원으로 실려갈것이라고 웃으시며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로라스케트장에 야간에도 운영할수 있게 바깥주로에 투광등들을 설치한것을 보시고 잘하였다고 하시면서 로라스케트장을 밤에도 운영하면 야간풍경이 더 멋있을것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 로라스케트장을 돌아보시고 떠나시는 순간 어린이들이 《만세!》를 부르며 따라섰다.

옮기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격정에 겨워 발을 동동 구르는 어린이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로라스케트를 타던 어린이들과 근로자들을 한품에 안아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고 이곳을 떠나시였다.



준공을 앞둔 로라스케트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각곳에 특색있게 꾸려진 로라 스케트장들에서 마음껏 운동을 하며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있는 학생소년들과 어린이들



해빛을 안고 별빛을 안고
붉게붉게 피여나거라
이 세상에 너희들보다
소중한것 더는 없단다
아 너희들은 조국의 미래여라

밝게 웃어라 곱게 피여라
아름다운 목란꽃처럼
내 조국을 받들어나갈
기둥으로 자라나거라
아 너희들은 조국의 미래여라

— 노래 《너희들은 조국의 미래여라》중에서 —

위대한 어버이의 축복속에





경상유치원의 어린이들을 따뜻이 품어안아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꼬마의사》의 재롱도 받아주시며

주체101(2012)년 7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경상유치원을 또다시 찾아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이미전부터 와보려고 생각은 하면서도 시간을 내지 못하고있다가 오늘에야 왔다고, 늦게 와서 미안하다고 겸허하게 말씀하시였다.

중앙홀이며 연혁소개실을 다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잠시후 복도를 지나 2층에 있는 종합놀이장에 들어서시였다.

하얀 위생복을 입고 청진기를 목에 건 《꼬마의사》가 간호원차림을 한 어린이와 함께 앉아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를 해주고있는 모습을 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환하게 웃으시며 병원놀이칸은 진짜 병원같이 꾸려놓았다고, 병원놀이칸에서 어린이들이 진찰하는 시늉도 하고 치료하는 시늉도 하는데 제법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어린이들이 노는 모양을 한참동안이나 눈여겨보시던 그이께서는 《꼬마의사》앞으로 다가가시여 그애의 볼을 다독여주시더니 자신의 팔소매를 올리시였다.

방금전까지 의사흉내를 곧잘 내던 어린이는 동그란 두눈에 의문을 가득 담고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보기만 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물으시였다.

《어디가 아픈지 나도 한번 진찰해주렴.》

《꼬마의사》는 그제서야 청진기를 그이의 팔에 대보고나서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어디가 아파서 왔나요?》

그러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환하게 웃으시면서 일군들에게로 돌아서시더니 진찰하는 어린이에게 내가 어디 아파하는것 같은가고 물으니 어디가 아픈가고 되물어본다고, 그런것을 보면 어린이들이 눈치가 말짱하다고 하시며 저희들끼리 놀 때에는 잘 놀던 어린이들이 어른들이 와서 진찰을 해달라고 하니 어색해하고있다고 정겨운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한 나라의 령도자이시기 전에 어린이들의 친어버이가 되시여 다정한 이야기를 주고받으시는 자애로운 그 모습은 동서고금에 있어본적이 없는 사랑의 정화를 이루는 불멸의 화폭이였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을 《진찰》한 어린이는 아버지, 어머니가 다 군관인 7살 난 엄진청이라는 처녀애였다.



경상유치원의 종합놀이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희망과 재능의 꽃을 활짝 피워가는 경상유치원 어린이들








행복동이, 보배동이들로 부럼없이 자라나고있는 탁아소, 유치원의 어린이들









밝아오는 조국땅에 노을빛으로
붉게 타는 넥타이를 펄펄 날려라
우리들은 공화국의 나어린 영웅들
혁명의 후비대로 배워나간다
소년단동무들아 기발을 높여라
대원수님 뒤를 따라 힘차게 나가자

백두에서 솟아오른 해발을 따라
걸음마다 더운 심장 높이 뛰누나
우리들은 수령님과 장군님의 아들딸
빛나는 혁명전통 이어나간다
소년단동무들아 기발을 높여라
대원수님 뒤를 따라 힘차게 나가자

— 노래 《소년단행진곡》 중에서 —





조선소년단창립 66돐경축 조선소년단 전국련합단체대회에서 축하연설을 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대표인원이 2만 1명이 된 사연

주체101(2012)년 6월 6일, **김일성**경기장에서는 조선소년단창립 66돐경축 조선소년단 전국련합단체대회가 성대히 열리였다.

조국땅 북변의 두메산골마을의 소년으로부터 외진 섬마을의 소녀에 이르기까지 2만명의 소년단원들이 평양으로 초청되였다.

대회가 진행되기 직전이였다.

대회장밖을 에돌던 한 소년이 갑자기 대회장출입구에 나타나 대회에 참가시켜달라고 떡 버티고 서서 떼를 쓰기 시작하였다.

그로 말하면 평안북도의 어느 한 소학교에서 공부하는 9살의 평산이라는 학생이였다.

사랑의 애기궁전인 평양산원에서 태여났다고 해서 평산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소년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온 나라 소년단대표들을 평양으로 불러주셨다는 소식이 전해진 다음부터 대표자격을 받지 못한 안타까움으로 하여 안절부절을 못했다. 그것은 대회에 참가하지 못한 아쉬움에서만이 아니라 경애하는 원수님의 넓은 품에 안겨 그이의 사랑을 한껏 받아보고싶은 간절한 소원에서 오는 충동이였다.

소년은 평양행 렬차에 몸을 싣고 수백리길을 달리였다.

이렇게 되여 소년은 대회장앞에까지 와서 무작정 참가시켜달라고 막무가내로 졸라댔던것이다.

이 사실은 그대로 경애하는 원수님께 보고되였다.

뜻밖의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오매불망 대회에 참가하고싶은 오직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수백리길을 혼자서 달려온 소년의 애타는 마음을 너그럽게 헤아리시여 그 간절한 소원을 풀어주자고 하시며 즉석에서 대회에 참가시키도록 특별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이렇게 되여 력사에 길이 남을 조선소년단창립 66돐 경축행사대표인원은 2만명이 아니라 2만 1명이 되였다.



조선소년단창립 66돐 경축행사대표들을 만나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에서 연설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소년단원들의 아름다운 풍모와 씩씩하고 명랑한 모습에서 주체혁명의 밝은 래일을 내다보고있는 우리 당은 소년단원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을것이며 소년단원들의 행복에 넘친 웃음과 창창한 미래를 끝까지 지켜줄것입니다.

김정은





앞날의 과학기술인재로 튼튼히 준비해나가고있는 소년단원들



광복의 천리길답사행군을 통하여 몸도 마음도 튼튼히 단련해나가고있는 소년단원들



조선소년단 입단식에 참가한 학생소년들



전반적12년제무료의무교육의 혜택아래 지덕체를 겸비한 역군들로 준비해가고있는 소년단원들







복받은 소년

주체101(2012)년 9월초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훌륭히 일떠선 창전거리에 새집들이한 한 로동자의 가정을 찾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수수한 방바닥에 둘째아들 훈이를 안고 앉으시여 멋진 새 집을 받아안고 어쩔줄 모르는 집주인들과 기쁨도 함께 나누시며 가정의 래력에 대하여 다정히 물어주시였다. 그러시다가 13살 난 맏아들 원이가 아직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았다는 그들의 대답을 들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애도 이 자리에 있었으면 좋아했을것이라고 하시며 못내 서운해 하시였다.

단란한 가정적분위기속에서 새집들이한 그들을 축하하여 기념품과 함께 사랑의 축배잔도 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로 꾸려진 방들을 돌아보실 때였다.

축구소조에 갔던 원이가 집으로 들어섰다. 순간 그는 깜짝 놀랐다.

너무도 당황한 원이는 땀에 젖은 훈련복을 벗는것도 잊고 방안으로 들어서며 《경애하는 원수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씩씩하게 인사를 드리였다.

그이께서는 반가와하시면서 원이를 한품에 안아 두볼을 어루만져주시고 어깨우에 두손을 얹으시며 어느 학교에 다니는가, 어디에 갔다가 늦어왔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축구소조에 갔었다는 대답을 들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축구를 잘해? 나하구 한번 축구를 해볼가?》**라고 허물없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의 등을 다정히 두드려주시면서 앞으로 축구선수가 되겠는가고 물으시였다.

그가 꼭 축구선수가 되겠다고 말씀드리자 그이께서는 결의가 좋다고 하시며 아들들이 참 대견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떠나시면서 원이의 등을 또다시 두드려주시면서 공부도 잘하고 축구훈련도 잘해서 훌륭한 축구선수가 되라고 당부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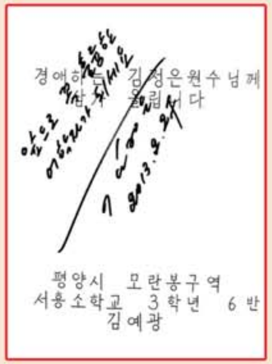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크나큰 축복을 받아안은 원이와 그의 가족은 마음속으로 경애하는 원수님께 고마움의 인사를 올리고 또 올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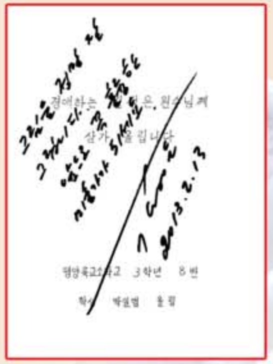
창전거리에 입사한 로동자가정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각지의 학생소년들과 어린이들이 삼가 올린 편지를 보아주시고 보내주신 친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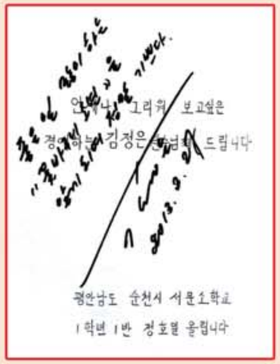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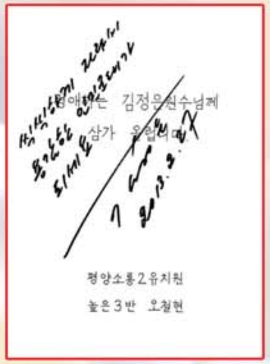
















제2차 크라이네브명칭 모스크바국제피아노콩클에서 특등을 쟁취한 최장흥학생


전국어린이바둑경기에 참가한 재능있는 어린이들



태권도로 조국의 영예를 떨쳐갈 일념안고 훈련에 열중하고있는 학생소년들



국제피아노콩클에서 여러차례 우승한 마신아학생



제27차 쇼뺑국제청소년피아노경연에서 특별상을 수여받은
유진아, 리권윤어린이



제15차 국제축전 《모스크바는 벗들을 맞이한다》에서 커다란
파문을 일으킨 경상유치원 어린이들의 어은금3중주단

《**김정은**총비서께서 아이들과 함께 찍으신 사진이 매우 감동적이다.

그이는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제일 아끼고 사랑하시는 자애로운분이시다.

어린이들의 뛰여난 예술적재능을 보며 조선의 교육수준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였다.》

－ 베네수엘라 《끌라라 제드킨》녀성운동 위원장 엘레나 떼레싸리나레쓰 까레라 －

《마치 땅속에서 보석을 캐듯 어린이들의 재능의 싹을 찾아 키워주는 이렇듯 훌륭한 교육제도가 없다면 아무리 천성적인 재간을 가졌다고 하여도 자기의 꿈을 이루지 못할것이다. 세상에 부럼없이 행복하게 자라나는 조선의 어린이들이야말로 나라의 왕이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 뽀르뚜갈민주녀성운동 위원장 레쥐나 마르케스 －

《지구상의 많은 나라들에서 아이들이 초보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있으며 재능있는 어린이들은 돈벌이수단으로 리용되고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당과 정부가 아이들을 위한 궁전을 지어주고 재능의 싹을 하나하나 찾아 키워주고있다. 정말 조선의 어린이들이 부럽다.》

－ 세계민주청년련맹 부위원장 칼빠나 마두바쉬니 －

《돈 한푼 내지 않고 자기의 취미와 소질에 따라 여러 분야의 폭넓은 지식을 배우는 이곳은 세계에서 으뜸가는 아이들의 궁전이다.

다시 태여날수만 있다면 조선에서 희망의 나래를 한껏 펼치고싶다.

후대교육사업을 제일중대사로 내세우는 조선의 정책은 모든 나라들이 따라배워야 할 본보기이다.》

－ 영국태권도련맹 성원 크레쎈 나이두 －



우리는 앞으로도 영원히 이 땅우에서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울려퍼지게 하여야 합니다.

김정은





온 나라 아이들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세상에 부럼없어라

우리는 모두다 친형제
우리의 집은 당의 품
우리의 아버진 김일성원수님
내 조국 한없이 좋네
사람들 화목하게 사는
손풍금소리 울려라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

—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 중에서 —

화첩　밝게 웃어라 활짝 피여라

구　성	김화명
편　집	권지혜
사　진	김남철, 로남철
낸　곳	평양출판사
인쇄소	평양인쇄공장
인　쇄	주체110(2021)년 6월 3일
발　행	주체110(2021)년 6월 5일

ㄱ-1503ㄷ







해빛을 안고 별빛을 안고
붉게붉게 피여나거라
이 세상에 너희들보다
소중한것 더는 없단다
아 너희들은 조국의 미래여라